

# '착시도자기'로 뉴욕 뒤흔든 청주 이승희 작가

기사입력 2014-02-18 08:32 | 최종수정 2014-02-18 09:07



'착시도자기'로 뉴욕 뒤흔든 청주 이승희 작가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도자기의 메카'인 중국 장시성(江西省) 징더전(景德鎮)에서 일명 '착시 도자기'를 제작,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충북 청주 출신의 도예가 이승희씨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2.18. sweet@yna.co.kr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맹수는 혼자 큼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코 성공하기 힘들죠"

'도자기의 메카'인 중국 장시성(江西省) 징더전(景德鎮)에서 일명 '착시 도자기'를 제작,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도예가 이승희씨가 자신의 고향인 충북 청주시를 방문했다.

그는 후배 예술인에게 "청주 같은 작은 도시에서 예술활동을 하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다"라며 "하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개척해 나간다면 '지역 장벽'을 충분히 허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청주대학교 공예학과 제 1회 졸업생인 그는 기반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나 홀로' 성장해야 하는 '시행착오 세대'였다.

공방을 차려 주부교실도 열고 커피잔 등 실용적인 공예품도 제작해 돈벌이하던 그는 8년 전 딸의 유학길을 돕기 위해 우연히 들른 징더전이란 도시의 매력에 푹 빠져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발 달는 곳마다 도자기를 반죽하고, 굽고, 말리고 심지어 나르는 작업까지 모두 분업화되어 있었다.

언뜻 낙후된 도시 같지만 인구의 80% 이상이 전 세계에 도자기를 수출해 먹고 살만큼 전문성이 뛰어난 곳이었다.

"저는 동양인으로 태어났지만 서양미술을 배우고 자라났죠. 현대시대에 살지만 옛것을 좋아했어요. 상반된 요인들이 부딪히면서 제 속에서 혼란을 일으켰는데, 징더전을 방문한 이후 진부해보였던 옛것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공예'라는 뼈대에 '현대미술'이라는 색을 입혀 하나의 견고한 작품을 탄생시키겠다는 오랜 꿈을 현실화했다.

흙으로 만든 도판 위에 붉은 흙물을 바르기를 수십 차례, 인내를 갖고 반복하다보면 어느덧 회화 같은 도자기 공예가 탄생한다.

두께가 불과 5mm 정도에 불과해 손으로 만져보거나 빛을 받아야 미세한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다.

그는 "회화처럼 보이는 입체감을 표현해내고 싶었는데, 중국의 흙은 입자가 곱고 마른 상태에서 부피가 크게 줄지 않아 섬세한 작업을 하는 데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진부할 수 있는 도자기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해낸 그의 작품은 '콧대 높은' 뉴욕의 미술시장도 뒤흔들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뉴욕의 '신(Shin) 갤러리'에 첫선을 보였을 때 전시 안내자의 체력이 소진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고, 뉴욕 부유층이 밀집한 곳에서 열리는 '햄튼 아트페어'에서는 천여만원 안팎의 작품 5점이 모두 팔려나갔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이지만 쉰여덟의 나이에 또 여전히 인문학을 공부하며 시대를 앞서 가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별 모양을 그리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립니다. 너무 흔해서 쳐다보지도 않죠. 하지만 예술가라면 별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기막힌 상상력으로 세계를 뒤흔들 '맹수'들이 청주에서 많이 배출되길 기대해봅니다"

sweet@yna.co.kr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60882>